

기본소득 운동의 또 다른 출발과 ‘헤어질 결심’

* 이 글은 지난 2022년 7월 8일과 9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워크숍 <2022년 기본소득 워크숍: 기본소득운동 평가와 방향>에서 발표된 글이다. 워크숍 분위기에 맞추어 작성된 글이기도 하고, 워크숍 때와 지금의 한국 사회가 또 달라 그 글을 그대로 수록하기에는 눈에 거슬리는 대목이 여러 군데 있어 약간의 수정을 가했다. 하지만 글을 다 쓰고 보니 이도 저도 아닌 글이 된 느낌이다. 독자들의 해량을 구한다.

류보선

계간《기본소득》

편집위원

버티고 버티다가 넘어지긴 다 마찬가지야. 근데 넘어진다고 끝이 아니야. 그다음에 있어. 너도 KO를 당해 링 바닥에 누워 있어보면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넘어져 있으면 조금 전이랑 공기가 달라졌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느껴져. 세상이 뒤로 쏙 물러나면서 나를 응원 하던 사람의 실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같은 기분이 들지. 그때 바로 바람이 불어와.

- 김연수, [난주의 바다 앞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감각이 필요하다. 새로운 바람은 새로운 감각을 불러온다. 그 감각을 통해 우리의 몸과 세계는 동시에 새로 태어난다.

- 김연수, [바얀자그에서 그가 본 것]

1. ‘꽃샘바람에 흔들려야 꽃은 꽃이다’¹⁾

허심탄회한 자리여야 이 자리가 의미 있을 것이라고 혼자 가정하기로 한다. 그럴 작정이다. 오늘만은 전략전술 이런 것 묻지도 않고, 혹시나

1) 류시화의 최근의 시집 『꽃샘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이다』에서 따온 제목이다.

의 한 마디가 기본소득 운동을 음해하는 말로 이용되지 않을까 따지지도 않고, 오로지 허심탄회하게 말해볼까 한다. 아마도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모두는 혹시 나의 한 마디가 기본소득 도입에 누가 될까, 걸림돌이 될까 좌고우면, 우왕좌왕 지내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오늘이 아닌 거의 모든 다른 날에 그러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자리는 그래서 안된다. 때가 때 아닌가. 오늘 이 자리는 혹시 우리의 좌고우면이 기본소득 운동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 국면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까지 반성해야 하는 바로 그런 자리인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직필하기로 하자.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러려 한다.

허심탄회하려면 이것부터 밝히는 것이 좋겠다. ‘경알못’식으로 말하면 나는 ‘기알못’이다.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에 버젓이 이름을 올려놓고 뭘 말? 할 수도 있겠다. 이왕 허심탄회하기로 한 거 말해 버리자. 그런데도 나는 ‘기알못’이다. 부끄럽게도. 내가 내 스스로 ‘기알못’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아마도 이것이 핵심적인 이유일 터인데, 기본소득에 대한 나의 짧은 공부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사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인임에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모질게 말할 것일 수도 있는데,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 운동 전반, 그리고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의 울퉁불퉁함 때문이다. 어떤 때는 알 것 같다. 그러다가 어느 대목에선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다. 기본소득이 뭔지, 우리가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해 올바른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을 너무 빨리 기본소득론자로 이끌기 위해 너무 많은 대목에서 거의 모든 사람의 눈치를 엿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연유로 때때로 기본소득의 원칙과 기본소득 준칙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변주되어 진행되고 있는 현실 안에서의 기본소득 혹은 기본소득의 현실태에 대해서 일관된 원칙과 준칙 하에 응원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하야간 때가 때고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오늘은 그간 너무 많은 한 말 대신에 그간 거의 하지 않은 말을 해보려 한다.

2. 우리의 모두의 책임, 우리 모두의 반성

“타인을 죽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생명을 바치지 않고 팔짱 낀 채 보고만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죄라고 생각한다. ... 그러한 일이 벌어진 뒤에도 아직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어 나를 뒤덮는다.”(야스퍼스)

때가 때인만큼 우리가 놓여 있는 자리, 우리의 세계내적 위치를 확인하는 일부터 해야 하리라. 얼마 전 기본소득 운동에 있어 획기적 사건이 될 수 있으리라 두 손 모아 기대했던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졌다. 아니, 이기지 못했다. 져서는 안 되는 선거였고 질 수 없는 선거였다. 역사를 1980년 중

반쯤으로 되돌리겠다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던 상대 아니었던가. 게다가 선거 기간 내내 지기로 작성한 것처럼 어처구니없는 짓을 연일 반복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기지 못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베키트식으로 표현하자면, 멋지게 지지도 못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안되며, 거기에 더 나아가 기본소득같은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국민이 인지까지는 몰라도 감지하고 있었던 정치적 상황이었다. 게다가 트럼프 같은 지도자를 갖게 되면 전국민이 얼마나 개고생을 하는지 미리 경험하기도 한 터였다. 그런데 오랜 기간 기본소득론자를 자처하던 진보 진영의 후보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실행 국가로 비약시킬 것으로 잔뜩 기대하게 했던 후보는 도대체가 무엇이 무서운지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기는커녕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큰 그림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서였으리라. 아니면 역풍이 두려웠을 수도 있으리라. 이유가 어떻든 우리는 전에 보지 못하던 선거를 치렀다. 나라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대통령 후보들이 정작 자신의 정책들을 몰래 감추고 때로는 그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그런 선거를. 그 결과 정책 대결 대신 서로의 추문을 물고 늘어지는 참담한 선거를. 그러나 이런 퇴행적인 선거라면 진보 진영이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저들이 누군가. 불법(적인) 선거의 달인들 아닌가. 아니면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느 방법도 가리지 않는 자들 아닌가. 게다가 이번 상대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로 그 자리까지 올라온 추문 활용의 고수 아니던가.

결과적으로 최악의 선거였고 참담한 패배였다. 지고 나서는 더 참담했다. ‘부족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했지만 무엇이 부족했는지 진짜 누구에게 미안한지에 대해서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그 상태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임했고 역시 이기지 못했다. 비굴하게 졌다. 아니, 비굴해서, 졌다.

물론 ‘젼·잘·싸’라고 말하는 이도 있는 모양이다. 그럴 수 있다 싶다. 겉보기에는 역대 최소 표차로 졌으니. 또 졌어도 정치생명은 이어가야 하니. 게다가 그들은 철학자도 아니고 운동가도 아니며 정치인이므로. 따라서 그들은 실제로 ‘젼·잘·싸’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떳떳하게, 혹은 뻔뻔하게 ‘젼·잘·싸’라고 해야 하는 이들인 것이다.

좀 어이 없긴 하지만 정치인인 그들은 이렇게 이 상황을 건너가고 있다. 그렇다면 정권 쟁취가 목적이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의 실현을 꿈꾸는 우리들은 지난 선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일까. 왜,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혁신 정책은 전혀 힘을 받지 못한 것일까. 우리가 뭘 너무 많이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물론 우리의 반성과 성찰이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불평등, 불공정 등 우리 사회의 심각한 증상에 대해 대안은커녕 대책도 없이 오로지 능력주의의 강화를 통한 성장을 내걸었던 이가 대통령에 당선된 언어도단적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불평등 등 신자유주의적 모순이 폭발적으로 증폭될 윤석열 치하에서 기본소득 운동 등 혁신 정치 세력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점검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차대한 문제로 보인다. 그렇다. 문제는 항상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수렴된다.

3. 일보전진 이보후퇴, 그러나, 그러나, 더욱 더……

“항상 시도했고 항상 실패했다. 괜찮다. 다시 시도하라. 다시 실패하라. 더 낮게 실패하라!”

(사무엘 베케트)

지난 대선 시기 우리는 정말 죽자사자의 심정으로 대선 국면에 개입했다. 그 결과물이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이었다. 돌이켜보면, 그리고 돌이켜봐도 멋진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또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에서 그려낸 기본소득 사회를 향한 로드맵이 이제까지 나온 모든 기본소득을 향한 마스터플랜 중 가장 현실성 있는 것이라고, 나는 지금도 믿는다.

여기까진 괜찮은, 심지어 멋진 시도였다. 하지만 그 다음은…? 영 짱이었다. 너무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 정정하자. 문제가 많았다. 오랜 기간 모여 이 멋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된 까닭인지, 우리는 제각각 흩어졌다. 누구는 이재명 캠프로, 누구는 오준호 캠프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 정책은 현실 정치와 결합될 때, 그것도 우리의 기본소득 로드맵에 보다 우호적인 정치 세력과 결합할 때 실현 가능할 것이므로.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쪽의 기본소득 플랜이 우리와 같았는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그렇지 않았다. 달랐다. 큰 차이까지는 아니라고 하자. 그래도 분명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도 각각 어느 쪽으론가 흩어져 갔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이름으로 우리와 다른 기본소득 로드맵에 대해 평가하고 비판하고 논쟁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쪽으로 스며들었다. 한편에서는 열심히 우리의 로드맵이 가장 현실적인 로드맵임을 알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로드맵과 많이 다른 로드맵을 제시한 진영에 이름을 걸었다. 이 애매한 연대라니! 그러는 사이 오랜 기간 공들여 정밀하게 가공한 우리의 로드맵은 거의 공중분해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 각각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기본소득을 당장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정치와 연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나 자신까지를 포함하여 그래서 안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와 생각한다. 싸웠어야 한다고. 물고 뜯었어야 한다고. ‘나한테 이래도 돼?’라고 할 정도로, 아예 정내미가 떨어질 정도로 치열하고 치밀하게 말이다.

아마도 멋지게 실패하기보다는 멋지게 성공하자는 욕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금만 잘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실제로 그때는 그 순간이 곧 도래할 것 같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다. 조금만 힘을 실어주면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기본소득이 구현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같이 들뜬 만한 순간도 있었다. 그 들뜸 때문에, 멋지게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공들여 마련한 로드맵을 제쳐두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렸다. 그리고 한때는 기본소득론자였으나 이번 선거 기간에서는 기본소득론자가 아니었던 그의 입만 바라보았다. 오로지 입만 바라보았다. 그의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정권을 잡겠다는 탐욕의 눈빛도 동요의 찡그림도 외면한 채, 그의 입에서 제대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선거 기간 내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듯 기본소득을 부인했다. 부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냉철하게 거리를 두었다.

그런데도 그는 졌고, 그의 입에 큰 기대를 걸었던 우리는 뭐 좇던 뭇처럼 망연자실한 상태다. 그러나 어찌랴.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쓰러져도 일어나고 일어설 힘이 없어도 주먹을 불끈 쥐어야 하는 것은 이 질서 속에서 이런 식으로 통치되지 않겠다는, 더 나아가 내가 통치받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그 세상에서 ‘복종하고 싶은 것에 복종하’는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한 ‘행복’을 누리려는 자들의 숙명이다. 다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차적으로 ‘이번엔 진짜로 멋지게 실패하겠다’는 태세 전환이다. 동시에 기존의 우리와 과감하게 헤어지고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지 근본적으로 되물어야 한다.

4. 그토록 교활한 저들+우리, 그리고 좌파 포퓰리즘의 길

“아우슈비츠 이래로 서정시는 야만이다.”(아도르노)

만약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뛰어야 할 로도스는 너무나 명확하다. 그간 너무 많이 해 왔던 일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고 그간 거의 하지 않았던 일의 세목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나는 믿는 편이다. 바로 위의 아도르노의 말. 위의 아도르노의 말은 아우슈비츠로 이후 인간은 서정시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야만적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인간 모두가 더 이상 진정한 주체일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 서정시를 고집하는 것은 야만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여기까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아도르노는 이 말 속에 한 가지를 더 함축해놓고 있어 특징적이다. 아우슈비츠를 현실태로 만든 야만의 적들 속에서 단순히 서정시를 반복하는 것은 그것은 야만에 적대적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야만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의미. 이제 더 이상 적은 열린 사회를 노골적으로 폭력적으로 가로막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 아니다. 모든 대안과 비판을 허용하며 야만을 유지하는 ‘열려 있는 척하는 적들’이다. 이 적들이 지배하는 사회 속의 개인은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냉소적 주체가 된다. 그들은 어떤 이데올로기에 세뇌되어 혹은 속아 아우슈비츠라는 폭력에 동원된 것이 아니다.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혼자 잘난 체하면 손해다라는 계산 속에서 아우슈비츠의 만행에 동참한 이들도. 우리 사회는? 우리도 이렇다. 우리는 열린 듯 굳건하게 닫혀 있는 신자유주의 세상 속에서 냉소적 주체들을 설득 혹은 설복시켜 기본소득 세상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이제 단순한 서정시여서는 안된다. 다양하고 다각적이며 다면적인 시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감행해야 할 지적 모험이 여럿 있지만, 내가 보기엔 그중 시급한 것이 몇 가지 있다. 다음이다.

하나, 기본소득 개념의 재정립. 고백하자. 기본소득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기본소득에 매료된 것은, 물론 이 경험이 현혹인지 진리와의 찰라적 조우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기본소득이 ‘생산의 공공성과 소유의 사적 성격’이라는 불평등 혹은 (인류세적) 착취 구조를 혁신 혹은 혁파하고 분배의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동시에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억압되고 폐제된 증여와 나눔의 마음을 귀환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제도라 보였기 때문이었다. 한데 현재의 기본소득 개념은, 내가 보기에, 견어들인 세금을 어떻게 정의롭게 분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 대해 혹은 그것의 윤리성과 도덕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인색하다. 내가 보기엔 기본소득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생산의 공공성과 소유의 (비대칭적, 독과점적) 사적 성격’인 이 시대에서 인간 모두가 윤리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 선한 상상력을 경험으로 ‘생산의 공공성과 소유의 (비대칭적, 독과점적) 사적 성격’인 자본주의 체제를 균열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의 개념, 혹은 기본소득의 역사적 가치를 논하면서 이 부분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더불어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가장 정의롭게 분배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할 때, 그렇다면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가장 정의롭게 분배하는’ 황금률을 발명하는 것도 시급해 보인다.

하나, 또 다른 기본소득 실험의 발명과 기존 실험에 대한 엄정한 평가. 내가 보기에 기본소득의 가치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것 중의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기본소득 실험이다. 기본소득 실험이 반복될수록, 그리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를 더 많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기본소득의 가치는 반감되고 반론은 커진다. 내가 느끼기엔 그렇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의 기본소득 실험(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이 주로 분배의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까닭이다. 기본소득의 정신에 맞게 재원을 확보하는 실험도 동시에 해야 할 때가 아닐까. 그 실험 속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때, 기본소득은 단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구의 인류세적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곧 대안으로 자리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냉소적 주체의 계산을 뚫고 그들의 마음 속에, 열려 있는 척하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굳건하게.

하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헤어져야 할 것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그것을 결단 혹은 결행하는 것이다. 아마도 기본소득을 동조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간 우리는 너무 쉽게 연대하려고만 했다. 그것이 어떤 형태건 기본소득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면 우호적인 시선을 보냈고 연대하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기본소득을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는 강박과 그에 따른 연대가, 내가 보기엔, 기본소득의 개념과 가치를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축소시켜 왔다. 이젠 레닌의 뒤를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레닌주의로 가자는 말이 아니다. 소수파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과 바람직성 때문에 곧 다수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볼세비키를 자처했던 그 레닌을 좇아 자구구 니주의(字句拘泥主義)적 기본소득론과 결별해야 하는 것 아닐까.

5. 선의 제도화, 혹은 생태적 상상력의 제도화, 혹은 증여와 보살핌과 돌봄의 제도화와 기본소득

김애란이라는 작가가 있다. 한때 어느 글에선가 ‘선의 상상력’에 대한 말한 적이 있다. 이 악다귀같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때 인간의 것이었으나 이제는 잃어버린,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철저히 억압되고 있는 ‘선한 마음’을 복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취지의 말이었다. 이런 것으로 기억한다. 인문학자인 나는 지금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선의 상상력’이 아닐까 할 때가 많다. 아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현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쓸모없는 실존’으로 격하되어 세상 저편으로, 그리고 인간의 기억의 저편으로 밀려난 생태적 상상력, 증여, 보살핌, 돌봄, 나눔, 게으름, 신명, 마을공동체를 다시 귀환시키는 것이라고. 그것도 아니면 브뤼노 라투르의 말처럼 ‘지구 차원의 거주가능성’을 사유의 중심에 놓는 일종의 사상적 전회가 필요한 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을 귀환시키고 복원할 때만 그 어떤 제도도 그 원래의 목적에 맞게 작동할 수 있다고도 믿는 편이다.

내가 기본소득에 큰 기대를 거는 이유는 기본소득이 인간에게 희미하게 남아 있는 이 선한 상상력 등등 무의적으로 귀환하여 촉발시킨 제도라고 믿는 까닭이며 동시에 기본소득이 실행되면 역으로 인류 전체가 오랫동안 잃어버린 ‘선의 상상력’ 등을 회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믿는 때문이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본소득 개념을 재정립할 때도, 기본소득 운동의 방향을 재설정할 때도, 그것은 인간의 ‘선의 상상력’ 등과 결합되어야 하며 그 ‘선한 마음’ 등을 복원시킬 때만 기본소득은 우리가 희망하는 기본소득일 수 있다는 점을.